레슬리 알렌 박사, 에스겔, 4강,
이스라엘 땅에 대한 멸망의 메시지, 에스겔 6:1-7:27

© 2024 레슬리 앨런과 테드 힐데브란트

에스겔서를 가르칠 때 레슬리 알렌 박사(Dr. Leslie Allen)입니다. 이것은 세션 4, 이스라엘 땅에 대한 파괴의 메시지입니다. 에스겔 6.1-7.27.

이제 에스겔서 6장과 7장이 나옵니다. 1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에스겔서 첫 부분의 진행 과정을 되돌아보면 일련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환상이 있었고, 상징적인 행동이 있었고, 심판의 신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예언은 6장과 7장까지 이어지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심판의 신탁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판 의 신탁은 상징적인 행위와 연결되어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예루살렘 지향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본질적으로 예루살렘의 운명인 예루살렘에 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토지와 관련된 판단에 대해 좀 더 폭넓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난을 당할 곳은 유다 땅, 이스라엘 땅이다.

그래서 여기에 이스라엘 땅에 대한 일련의 멸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전 오라클과의 차이점입니다. 예루살렘 포위와 함락의 어두운 그림자, 포위 공격은 588년에 시작되어 587년에 끝났고, 그 그림자는 여전히 본문 위에 암묵적으로 어렴풋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것을 생각하는 이유는 바벨론의 침공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침공은 결국 예루살렘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그 땅의 함락과 멸망도 특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6장과 7장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두 개의 문학적 단위, 두 개의 예언적 문학적 단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이 같은 방식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에서는 이것이 다양한 메시지를 통해 전진을 나타내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공식,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습니다. 그것은 예언적 메시지를 받기 위한 공식입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우리는 섹션의 시작 부분에서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6장은 7장과 비교하여 끝났 습니다 . 6장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실제로 여기에 두 개의 별도 메시지가 통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부터 10까지 있어요.

1부터 10까지, 그리고 11부터 14까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3절의 공식, 즉 말하는 공식입니다. 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은 특정 메시지의 낮은 수준에서 시작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런 다음 11절에 비슷한 공식이 있지만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에스겔이 그의 메시지의 시작 부분에서 선포할 일종의 예언적 표식으로 우리가 이전에 여러 번 만났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두 가지 소개 공식은 1부터 10까지, 그 다음에는 11부터 14까지 두 개의 별도의 작은 메시지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두 메시지 모두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즉, 물리적인 몸짓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체로 상징적인 행동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에스겔이 시작하려는 특정한 몸짓이 있다는 것과 비슷한 뭔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향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 역시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여러 번 보게 될 공식입니다. 에스겔은 메시지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을 의도하는 방향을 굳건히 응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정된 응시는 당신의 얼굴을 향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1절에는 또 다른 동작이 있습니다.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십시오. 그리고 여기에는 이스라엘 집의 모든 가증하고 가증한 일에 대한 설명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동작을 보고 11절에 나올 때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러한 평행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두 경우 모두 이스라엘 땅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메시지가 나란히 배치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잘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 이스라엘 땅에 닥칠 재난에 관한 것입니다.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고 했습니다 . 글쎄요, 그것은 분명히 수사적인 표현입니다. 우선 산에는 귀가 없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에게로 향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산에 대해 하는 수사학적 연설이 있습니다. 물론 수사적 연설 뒤에 있는 실제 수신인은 전쟁 포로, 즉 바빌로니아에 있던 597명의 전쟁 포로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에스겔이 수백 마일 떨어진 이스라엘 산에 전하는 이 메시지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산에 대한 이 기사는 왜 선정되어야 합니까? 왜 그들이 이 주소를 받을 가치가 있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네, 여기 있습니다.

11절에 있는 다른 공식이 이미 3절에 있고 여기에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산과 작은 산과 시내와 골짜기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리고 그 목록에는 뭔가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모든 유배자들, 그 597명의 유배자들은 수 마일에 걸쳐 펼쳐져 있는 평평한 평원인 바빌로니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험준한 고향, 산과 언덕, 계곡과 계곡이 있는 그들의 고향에 대해 매우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곳은 약속의 땅이다. 그곳은 그들의 조상들이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가고 싶어하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뭔가 특별하고 가슴 아픈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풍경은 그 장엄함과 함께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풍경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언급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는데, 왜냐하면 산은 포로 이전의 후기 선지자들과 관련하여 특히 다소 불길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높은 곳이 있었기 때문이다.

3절에 보면 내가 칼을 네게 임하게 하여 네 산당을 멸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있는 지역 성소, 지역 예배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당신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축제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교회는 말하자면 모퉁이를 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축제 기간이 아닐 때에도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고방식에 반대되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 정통 신학에서는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확고하게 유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에스겔은 그러한 관점을 굳게 고수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당을 숭배하는 것에는 자동적으로 뭔가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불길한 일이 있었는데, 바로 이러한 산당들이 정통파에서 우상 숭배로 간주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왜 그랬나요? 그들이 숭배할 때 형상을 등장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지방 교회들에는 가나안 사람들의 영향과 이교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여기서 공격의 대상이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의 정통 신앙은 종교적 이미지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이 십계명의 시작 부분인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당신은 자신을 위해 우상이나 형상, 즉 하늘에 있는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마십시오. 위에 있는 것이 아래로 땅 위에 있는 것이요, 그것이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입니다.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숭배하지도 말라.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 즉 십계명에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있었다.

여기 출애굽기 6장 4절 끝 부분에서 우상에 대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들은 자동적으로 구약의 정통 신학과 관련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파괴 메시지의 기초입니다. 너희 제단은 황폐해질 것이다. 네 향이 깨질 것이다.

내가 너희의 살해당한 자들을 너희 우상들 앞에 던져 버릴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시체를 그들의 우상 앞에 두겠다. 내가 네 뼈를 네 제단 주위에 흩뿌리리라.

자, 이것은 파괴를 말하지만, 또한 다른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산당들은 시체와 뼈들로 인해 더러워져서 더 이상 예배를 드리는 데 사용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결한 운명이 있습니다. 학살 사실에 관계없이 더 이상 예배에 사용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가 사는 곳마다 네 성읍이 황폐해지고 네 산당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당신의 제단이 황폐해지고 파괴될 것입니다. 당신의 우상은 부서지고 파괴되었습니다.

너희 향대가 잘려졌느니라. 그리고 살해당한 자들이 너희 가운데 쓰러질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메시지가 두 개로 나누어져 있다는 점이다. 하나부터 열까지. 그리고 전반부는 7절로 끝납니다.

그리고 물론, 자세히 살펴보면 그 단서는 인식 공식입니다. 에스겔서는 일반적으로 심판의 메시지로 끝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산에 있는 산당들이 이 모든 일로 더럽혀지고 파괴되었으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현실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예배의

순결함에 대한 나쁜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전체적인 메시지에는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역시 10절의 인정 공식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이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위협한 것은 헛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헛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나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들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겠다고 위협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8절에는 이 첫 번째 메시지의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좀 아끼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심판의 신탁에서 추방은 분명히 그랬듯이 나쁜 것으로 나타납니다. 집을 떠나 수백 마일 떨어진 곳에서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일부 사람들이 우려하는 유배의 운명이다. 그리고 9절에 보면, 포로로 잡혀간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살아남은 이들이 나를 기억할 것입니다.

나를 외면하는 그들의 방탕한 마음에 나는 얼마나 억눌렸는가. 그리고 그들의 우상을 향한 그들의 음탕한 눈. 그 때에 그들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으므로 자기 목전에 가증한 자가 되리라.

그러면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등등. 이제 여기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이 고통을 겪을 때 두 가지 수준에서 고통을 받습니다. 그들은 물리적인 수준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일종의 심리적 후유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기억하며 산다.

후회하며 산다. 그들은 오랫동안 그 상황에 대한 슬픔을 마음에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고통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배자들에게는 첫 번째 고통과 함께 두 번째 유형의 고통도 있습니다. 그들은 집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깊은 슬픔과 후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유형의 심리적 고통이 강조됩니다.

그리고 이 심리적 고통에는 일종의 사슬이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그들이 고국에서 쫓겨난 이유를 생각할 때 나쁜 기억이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후회가 있을 겁니다. 잘못된 선택과 그것이 하나님께 미치는 영향에 대한 죄책감이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언급하겠습니다. 후회, 상실감, 자신이 선택한 결과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일하고 계시고, 그래야만 했다는 인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했어요. 한 가지 흥미로운 특징은 9절 중반에 나옵니다. 그들은 나를 외면한 그들의 방탕한 마음에 내가 어떻게 무너졌는지입니다. 이 진술의 중간인 NIV에서 나는 간음한 마음으로 인해 내가 어떻게 슬퍼했는지 설명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여기에는 하나님의 슬픔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한다는 인간의 슬픔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흥미롭지만, 하나님도 슬퍼하셨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경험에서 하나님도 피해를 입으셨고, 심리적으로도 상처를 입으셨다는 것이 여기에서 매우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역시 이 유배의 일종의 희생자이십니다. 다양한 언어에서 우리는 다음 장에서 이 사상이 다루어지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실, 하나님 자신의 상실, 심지어 사람들이 그 땅에서 추방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심리적 상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기에 쉬운 일이 아니었고 , 하나님 자신의 마음에 깊은 슬픔의 잔재를 남겼으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아이들에게 이것이 당신을 아프게 하는 것보다 내가 더 아프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11장에서 14장까지의 두 번째 신탁에 이르게 되는데, 이 신탁은 이 메신저 공식으로 소개되고 또한 이 물리적인 몸짓으로 소개됩니다.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십시오. 이제 제스처가 어디에 관련되어 있는지, 다른 문화에서 제스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항상 질문해야 합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문화가 있는데, 이는 '아니오'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하는 일에 있어서 외국 지역에 가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손뼉을 치며 기쁠 때 그렇게 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니, 상황이 있습니다. 다루기 힘든 학급 앞에 있는 교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무엇을 하는가? 박수 한 번.

그리고 아, 주문하라는 전화가 오네요. 그리고 그것은 그의 이의 제기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닥치세요.

그래서 그는 손뼉을 한 번 치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손뼉을 한 번 친 후 발을 구르세요.

그리고 발을 구르면 분명히 적대적입니다. 여기서 박수를 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12절 끝부분에는 나의 진노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몸짓, 즉 발을 구르며 손뼉을 치는 것은 이 모든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 즉 분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슬픔, 분노에 대한 반응이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때로 부모들은 제멋대로인 자녀를 두고 그 자녀에게 화를 내기도 하지만, 자녀가 그런 일을 했다는 사실에 슬퍼하기도 하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도 복잡한 감정이 있습니다. 9절에는 슬픔이 있고, 11절 이하에서는 분노가 있는데, 둘은 함께 속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그는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가증하고 가증한 일로 인해 슬프게도 부르짖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약간의 슬픔이 있고, 슬프게도

다가올 재난에 대한 슬픔의 표현도 있습니다. 세 가지 형태의 처벌이 있을 것입니다.

칼과 기근과 역병으로 죽으심. 11절 끝. 그리고 이것은 다음 절에서 전개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5장 12절에도 나와 있었고 여러 번 사람들이 죽게 되는 다양한 방식으로 인한 육체적 고통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칼로는 분명히 적의 칼이다. 기근으로 인해 이는 도시 외부에서 식량에 접근할 수 없는 포위 공격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 위생이 부족하고 세균이 발생하면서 전염병이 발생하고 모두 건강에 해로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우리가 여기와 5:12의 앞부분에서 발견하는 세 가지 종류의 사악한 행위자들입니다. 그러나 13절에 보면 참소가 엮여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함이니라. 어떤 면에서 이것이 11절에서 시작된 이 짧은 메시지의 끝입니다.

그런 다음 이 비난이 심판 메시지에 엮어지면 확장됩니다. 그리고 14절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습니다. 우리가 심판의 신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고 처벌 측면이 두 가지 방식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부정적인 방식으로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개인적 개입과 인간의 결과에 의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14절의 이 개입에서 내가 내 손을 그들에게 펴서 그 땅을 황폐하게 하고 그들이 사는 모든 곳으로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13절에서는 인정 공식을 얻었고, 비난의 측면에서 확장을 얻었습니다.

아니요, 인간의 결과에 관해서는 13장에서 계속됩니다. 그리고 나서 14장에서 하나님의 개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 즉 유다 남쪽의 광야에서 땅이 멸망되는 정도를 봅니다. 시리아의 리블라까지요.

그 땅 전체가 바빌론 사람들의 손에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 사람들 뒤에는 하나님이 대리인으로 서 계십니다. 그 침략과 멸망에 있어서 그들을 향하여 친히 손을 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종결 인식 공식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마침내 그들은 다른 방법으로는 배울 수 없었던 것을 경험을 통해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현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그들을 어디로 데려가야 하는지에 대해 쓰라린 경험을 통해 배우게 될 것 입니다 . 그리고 7장입니다. 아뇨, 하지만 7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읽은 내용 중 이전에 언급하지 않은 또 다른 의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4장에서 시작하여 5장으로 이동하고 6장에서 점점 더 커지는 의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레위기 26장의 언약의 저주에 의존합니다.

아마 서두에서 언급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서는 6장에서 가장 강하게 나옵니다. 레위기 26장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행복한 부분과 슬픈 부분입니다. 그리고 행복한 절반은 언약 순종, 즉 하나님의 언약 규율에 순종하는 데 따르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편에는 언약의 저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그것이 4장과 5장, 그리고 최고로 6장에서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약을 어긴 것에 대한 형벌을 명시하는 제사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에스겔이 어떻게 제사장 선지자였는지, 그리고 그가 여기서 사용되는 용어인 토라의 제사장 본문에서 어떻게 선택하고 있는지에 대한 또 다른 표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특히, 음, 우리는 계속할 것입니다. 예, 예, 이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30절에서 33절. 거기에는 언약의 저주에 관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보시면 레위기 26장 30절을 보면 내가 너희 산당을 멸하리라 하셨습니다. 글쎄, 그것은 에스겔 6장 3절에서 한 단어씩 뽑아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내가 너희 산당을 멸하리라. 그리고 그것도 조금 나중에 올 것 같아요.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분명히 거기에 있었습니다. 내가 네 산당들을 멸하고 네 분향단들을 헐리라. 글쎄, 당신의 향은 서 있습니다. 내 생각에 그것은 동일한 히브리어 단어인데, 여기에는 다른 번역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서지고 잘려질 것입니다. 4절과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26장 31절에서는 내가 너희 성읍을 황폐하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6절에 다시 나타납니다. “네가 거주하는 곳마다 네 동네가 황폐하리라.”

마을과 도시라는 동일한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러면 레위기 31장, 26장, 31장에서 나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맡지 않을 것이다. 때로는 하나님께 예배의 제사를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구운 고기를 높이 평가하십니다. 음, 맛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희생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것은 때때로 사용되는 관용적 표현이자 비유입니다. 나는 당신의 기분 좋은 냄새를 맡지 않을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그들이 모든 우상에게 향기로운 냄새를 분향하던 산당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있습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형상, 야훼의 형상이었지만 하나님 자신과 유다 정교회에 의해 거부되었습니다.

그리고 32절에서는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라. 그것도 13절에 있습니다. 14절에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33절에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으리라 하셨습니다. 8절에 보면 너희가 여러 나라로 흩어지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매우 명백하게도 여러분은 레위기 26장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기도 한 선지자는 이 제사장 문헌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메시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 나는 이것이 당신을 어디로 데려갈지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메시지에 추가적인 권위와 진정성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추가 의제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땅의 멸망이라는 주제가 계속됩니다. 어떻게 수도 예루살렘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땅도 멸망될 것입니다.

7장은 다음 문학단위이다. 당신은 다음과 같은 소개를 듣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문학 단위를 소개하는 표준 방법입니다. 여기에는 함께 결합된 일련의 개별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절에서 그 메시지의 경계를 알 수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여러분은 4절 끝부분에서도 그 인정 공식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5절로 넘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그렇습니다. 그리고 9절은 인정 공식으로 끝나며, 심판의 신탁을 마치면, 치시는 분이 나 여호와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10절에는 서론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미 9절이 결론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10부터 27까지가 우리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끝납니다, 그것은 인식 공식에 의해 그것의 끝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들은 27절에서 내가 주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분적으로 기억하세요, 나는 근본적인 신 중심성이라는 문구를 사용합니다 . 그리고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는 모두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은 단지 일어나는 일이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7절로 돌아가서 우리는 이스라엘 땅이 여기에서 언급되고 있다는 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후반기 마지막 메시지에서는 땅 사방에 끝이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이제 끝이 다가왔습니다. 나는 당신을 향한 분노를 풀 것입니다. 당신은 그 단어의 끝을 세 번이나 알아차렸습니다.

히브리어 작문에서는 항상 반복에 주목해야 합니다. 단어가 반복된다면 이는 당신이 그 단어를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매우 확실한 표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말하는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반복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끝, 끝, 끝이 세 번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이전 예언에서 따온 것입니다.

6장에서는 제사장 본문인 레위기 26장을 강조합니다. 이제 예언서 본문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지하는 책은 아모스서에 있습니다.

그리고 8장입니다. 그리고 2절입니다. 아모스가 무엇이라 말하였는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느니라 나는 다시는 그들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날려 버렸습니다. 이제 완전한 끝입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끝이 이르렀다. 나는 다시는 그들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아모스서의 맥락에서 이것은 BC 721년에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경적으로 그것은 또한 587년에 예루살렘의 멸망과 남왕국의 멸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다시 끝입니다.

그리고 인식이 있는 것 같아서 흥미롭습니다. 약간의 단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모스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3절에는 다음과 같은 짧은 말이 있습니다. 이제 끝이 너희에게 이르렀느니라. 물론 아모스 8장 2절은 문자 그대로 북쪽 왕국에 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힌트는 선지자가 더 오래된 예언의 본문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그가 제사장이든 예언이든 이러한 오래된 본문을 활용하고 다시 사용하여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었음이 분명하다고 말할 수 있다는 그의 권위와 진정성을 확증합니다.

이제 남부 왕국의 차례입니다. 그런 다음 계속 진행합니다. 5절부터 9절까지는 우리가 본 별도의 신탁, 별도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유사합니다. 2절부터 4절까지와 매우 유사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나란히 놓이게 된 것은 바로 그 평행성 때문입니다. 그리고 끝 부분을 다시 선택하고 이 경우 에는 두 번 언급합니다. 6절, 끝이 이르렀다, 끝이 이르렀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7절에서는 또 다른 키워드도 사용합니다. 때가 이르렀다. 끝이구나. 미안하다. 그 날이 가까웠다.

이제 그날이 가까워졌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이전의 예언, 이전의 예언서를 생각나게 합니다. 첫 번째 언급인 회상은 다시 아모스서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모스 5장과 18절과 20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서 아모스에서의 주님의 날에 대해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언급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의 북부 선거구는 그날을 하나님이 우리 편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적을 정복하실 날로 생각했고 모든 것이 훌륭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는 '아니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주님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역사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시간, 하나님의 임재는 당신에게 부정적인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모스 5장 18절에서는 주의 날을 사모하는 너희에게 화가 있도다.

왜 주님의 날을 원하십니까? 빛이 아니고 어둠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도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향한 햇빛이 아니라 어둠이라는 잘못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20절 후반부에 계속해서, 주의 날이 어두움이 아니며 빛과 흑암이 없고 밝음이 없느니라. 그리고 여기에는 불길한 언급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에 개입하실 것이라는 이러한 기대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라는 절망적인 언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님의 날이 선택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그것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날이 가까웠으니, 그 날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여러분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안다면 스바냐, 스바냐가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을 예언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스바냐 1장 7절과 같이 여호와의 날이 가까왔으니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 주님의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스바냐 1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고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의 날과 그 어두움에 관해 매우 강력한 구절에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는 아모스를 의지하고 아모스를 발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아모스와 스바냐 모두에게 기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예언적 권위와 그의 빛나는 영웅들, 전쟁 포로들, 예루살렘의 엘리트들을 활용하여 이 본문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 아, 아모스, 아, 아, 스바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뒤를 따라 포로들인 포로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와서 에스겔이 말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5-9는 대체로 2-4의 재방송과 같습니다. 5-9는 별도의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2-4와 평행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두 선지자를 생각나게 하는 그날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때가 이르렀으니 소란의 날이 가까웠고 산에서 흥청거릴 날이 아니니라. 그리고 높은 곳이 있는 곳에는 산이 있었다.

그곳이 추수 축제가 열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대축제가 열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공상과 파티가 열릴 것입니다.

그러자 에스겔은 '아, 그런 소음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침략군입니다. 그것은 침략군이며 그들이 적을 파괴하는 데서 내는 모든 소음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서 우리는, 제가 말하지 않은 한 가지 사실은 여기에 일련의 여러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

너. 당신, 당신, 당신. 그리고 우리는 7장에서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땅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내 분노를 풀 것입니다. 자, 이것이 땅입니다. 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땅의 사람들을 비유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4절 끝 부분에서 인식 공식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는 점인데, 히브리어에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여성명사인 땅을 지칭하는 제2의 여성단수대명사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식 공식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이 두 번째 남성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쟁 포로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의 말을 실제로 듣고 있는 사람들이요.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당신은 587년쯤에 유다 땅에 이런 일이 일어날 때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러한 차별화를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는 you가 있는데, 이는 다시 땅을 의미하며 여성 단수입니다.

그리고 7절은 실제로 두 번째 남성 단수형입니다. 왜냐하면 '아, 그 땅의 주민'과 함께 오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집단 단수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때때로 그것에 밀접하게 참여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 여성 단수로 돌아가면 다시 땅이 나옵니다. 그러나 9절의 마지막 부분은 바빌로니아의 전쟁 포로에 대한 언급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러한 다양성을 얻게 됩니다. 아, 여기에 다른 수신인을 나타내는 전체 각주 세트가 있지 않는 한 영어 버전에서는 이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땅과 그 땅의 주민들에 대한 수사적 전달자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 포로들의 실제 주소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행되는 방식입니다.

이제 10~27이 다음 글입니다.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7장에 있는 세 번째 항목입니다. 그러나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그것은 이전에 사라진 것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징후는 날이 다시 온다는 단어입니다. 10절에 보면 그 날이 올 것을 보십시오. 이것이 이전 메시지로 설정된 이유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또 날이 이르렀고 그 날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절에서는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그리고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학적 맥락과의 연관성이 있는데, 그것은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 메시지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는 평행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2장부터 4장까지, 5장부터 9장까지의 별도의 신탁이 별도의 메시지이지만 평행을 이루는 것을 보았습니다. 음, 이것은 하나의 메시지이지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둘 사이에는 유사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평행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12절과 13절에 장사가 무익하니라.

12절과 13절에서는 더 이상 거래가 없을 것입니다. 사는 사람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사람도 슬퍼하지 마십시오. 판매자는 살아 있는 동안 판매한 물건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상업과 상업 중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정상적인 삶과 거래가 없습니다. 그리고 9절, 19절에는 은과 금, 은과 금에 대한 언급이 있기 때문에 일종의 연결 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상업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평행성이 있습니다. 부의 손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은을 거리에 내던질 것이다. 그들의 금은 부정한 것으로 취급될 것이다. 왜? 더 이상 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파괴 속에서 음식도 살 수 없고, 물건도 살 수 없고, 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경제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유사점 세트입니다.

그리고 14~16장에서는 나팔을 불며 전쟁과 죽음을 언급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자신을 방어하러 가지 않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칼은 밖에 있습니다. 역병과 기근이 그 안에 있습니다. 성 밖에는 칼을 들고 쳐들어오려고 아우성치는 군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하나님의 다른 대리자들은 칼과 역병과 기근과 역병과 기근이 성 안에 일어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들에 있는 자들은 칼에 죽느니라.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기근과 전염병이 그들을 삼켰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어디에 있든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쟁, 침략, 포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21장부터 24장까지는 다시 한번 침략과 멸망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이 낯선 사람들, 폭력을 휘두르며 소중한 장소를 더럽히는 외국 군대 등등. 이것이 두 번째 평행선입니다. 이러한 군사적 유사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17과 18에서는 전반적인 사기 저하와 애도가 나타나고 사람들이 17과 18에서 더 이상 대처할 수 없다고 느끼는 영향을 받습니다.

모든 손이 약해질 것이다. 모든 무릎이 물로 변합니다.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어야 합니다.

공포가 그들을 덮을 것이다. 수치심은 모든 얼굴에 나타나야 합니다. 모든 머리가 대머리가 되었습니다.

머리를 깎는 것은 애도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26, 27에서는 전반적으로 경악이 일어납니다. 26, 27, 그들은 선지자에게서 환상을 계속 구할 것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교훈은 제사장에게서 사라질 것이다. 장로들의 권고.

왕은 슬퍼할 것이다. 왕자는 절망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 땅 백성의 손이 떨리리라.

그래서 다시 한번 절망감과 경악감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행하면서, 각각의 경우에, 여러분은 이 평행성이 저절로 작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본 아이디어를 강화하는 것은 두 가지 방식입니다.

12절에 보면 사는 사람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사람도 슬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글쎄, 이것은 상업 거래를 할 때의 삶의 평범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살 때의 설렘이 있습니다.

아, 내가 원하던 바로 그거야. 그리고 당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을 살 때 당신은 몹시 흥분됩니다. 그러니 구매자가 기뻐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에도 판매자도 있고 판매자도 슬퍼합니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거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돈이 필요하지만 오랫동안 자신의 일부였던 무언가와 헤어져야 하고 그것을 팔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소유했던 것을 포기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반응은 이 재앙이 닥칠 때 과거의 일이 될 것입니다. 19절, 이는 저희 죄악의 걸림돌이니라. 이 은과 금은 아름다운 형상과 놀라운 형상을 만드는 데 사용되어 하나님께 대한 참된 예배를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이미지 가 없어 . 그래서 그들의 은과 금이 잘못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죄악의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때가 올 것입니다. 살 것도 없고 경제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은과 금은 쓸모 없게 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이 있는 것은 잘못된 예배 입니다 . 이 이미지의 이전 장에서 다루었던 주제인 이미지의 사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23절에는 도덕적인 비난이 담겨 있습니다.

이 땅은 피비린내 나는 범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도시는 폭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바벨론 침략의 원인은 단순한 종교적 죄가 아니라, 옛 언약 전통의 도덕적 명령을 따르기를 일반적으로 꺼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피비린내 나는 범죄와 폭력이 만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언약의 나라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싸우는 장입니다. 우리는 표면 아래로 들어가서 이것이 전쟁 포로들, 즉 자신들의 땅을 매우 사랑하고 그곳에서의 정상적인 삶을 마음 속으로 깊이 생각했던 예루살렘의 엘리트들에게 드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기를 바랐습니다. 다시 한번, 삶은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들은 이전에 즐겼던 것처럼 삶을 즐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은 매우 시끄럽습니다. 아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유다의 예전의 정상적인 생활 방식의 끝입니다. 지금은 심판의 때요, 죄가 형벌을 받을 때입니다. 종교적 죄와 사회적 죄.

그리고 영적으로는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심은 대로 거두느니라. 그리고 여기서는 그것이 당신 자신의 잘못이라는 생각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거기 있었고 상황이 너무 나빴고 그것은 당신 자신의 잘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합니다. 물론 갈라디아서 6-7장에서는 소문자로 심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물론 대문자 J를 사용한 판단입니다. 자, 이로써 책의 첫 번째 부분인 1-7장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심판의 선지자 에스겔의 환상과 사명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설명되는 그러한 표징, 상징적 행위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심판의 예언을 가졌습니다. 수많은 심판의 예언은 유다의 침략과 멸망을 하나님의 섭리적인 심판 사역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교훈은 다시 한번 597년 전쟁 포로들이 생각했던 것에 대한 항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집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앞으로 더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더 나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종말이 다가오고있다. 그리고 그것은 587년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실현될 것이고, 그 땅의 대대적인 멸망으로 실현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597년의 유배자들이 듣고 싶어하든 원하지 않든, 이것이 그들이 들어야 할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일어나자 그들은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듣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에스겔이 옳았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유다의 멸망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은 자신의 메시지를 강화하기 위해 이 두 가지 전통을 활용해 왔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레위기 26장의 저주에 대한 제사장적 전통이고, 다른 하나는 아모스와 스바냐에 나오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예언적 전통이다. 그래서 이 장에는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에스겔이 살아나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고 다른 성경과 비교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8장부터 11장까지가 될 것입니다. 공부할 내용이 꽤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에 대해 더 많이 알수록 내가 그들에 대해 말하는 내용을 더 잘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에스겔서를 가르칠 때 레슬리 알렌 박사(Dr. Leslie Allen)입니다. 이것은 세션 4, 이스라엘 땅에 대한 파괴의 메시지입니다. 에스겔 6.1-7.27.